

현안과 과제

■ HRI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전망

Executive Summary

<요 약>

■ HRI 한반도평화지수, 2015년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전망

(종합 평가) 2015년 2/4분기 평화지수는 상승한 반면, 3/4분기 기대지수는 하락함으로써 '실적과 전망'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2/4분기 평화지수는 37.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지난 분기에 이어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4.9p 하락한 35.3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전망은 2분기 연속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특징) 2015년 2/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객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주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뉘는데,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전문가평가지수는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교역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등의 증가에 힘입어 9.0p 상승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26.7에서 24.8로 1.9p 하락했다. 이는 새로운 경협 사업이나 당국간 회담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3/4분기 기대지수가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6.15 공동행사 무산과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UFG)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보수 성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기대지수 45.0)의 전문가들이 진보 성향(同 33.3)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사점) 을 하반기를 남북 화해협력과 분단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비정치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양측이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상호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을 위한 '일시적·시범적' 사업 추진과 함께, 8.15 기념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사업 제안이 요구된다. 예컨대, 시범적으로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우리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일정기간 동안 맞교환 운영하는 방안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특정 현안에 대한 One-Point 끝장회담 제안, 북한의 가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체육·문화 분야로의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과 다자간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 2015년 2/4분기 및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종합평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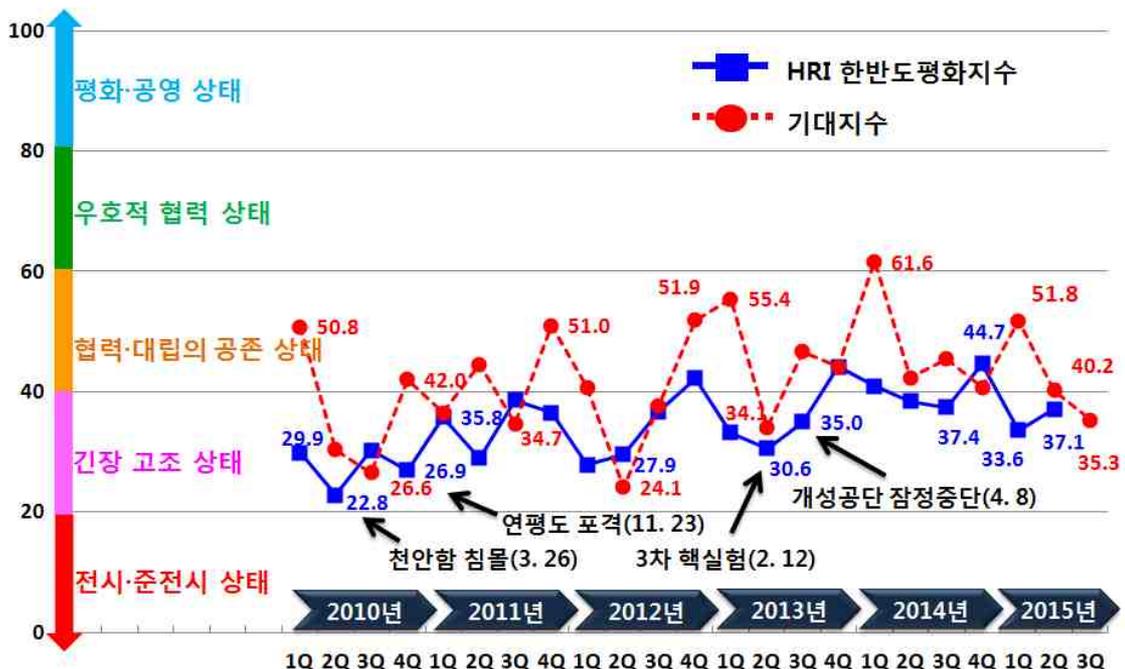
○ (종합)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상승한 반면,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는 하락함으로써 실적과 전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평화지수)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가 37.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지난 분기에 이어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한반도 평화지수는 교류협력 지수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주관적 지표의 하락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음
- 이로써 남북관계는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이후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기대지수)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4.9p 하락한 35.3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전망은 2분기 연속 부정적으로 조사되었음

< 2010~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 추이 >



1)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5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7명(보수 29명, 중도 28명, 진보 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 특징 분석 및 항목별 · 성향별 평가

○ (특징 분석)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주관적 지수 중에서도 기대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하였음

- 2015년 2/4분기의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큰 폭 상승한 49.5를 기록
 - 정량지수의 상승은 개성공단 사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반면, 주관적 지표인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하락
 - 전문가평가지수는 1.9p 하락한 24.8을 기록. 이는 새로운 경협 사업이나 당국간 회담이 없는 가운데, 고위급 접촉 제의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으로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됨
 - 3/4분기 기대지수는 4.9p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적치인 평화지수를 하회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함
 - 이는 6.15 공동행사 무산과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 8월로 예정된 한미군 사훈련(UFG)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됨

< 2013~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 부문별 추이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5. 2분기	37.1 (▲3.5)	24.8 (▽1.9)	49.5 (▲9.0)	48.9 (▲3.2)	50.0 (▲14.6)	35.3 (▽4.9)
'15. 1분기	33.6 (▽11.1)	26.7 (▽12.3)	40.5 (▽9.9)	45.7 (▽1.2)	35.4 (▽18.5)	40.2 (▽11.6)
'14. 4분기	44.7 (▲7.3)	39.0 (▲7.7)	50.4 (▲6.8)	46.9 (▲0.3)	53.8 (▲13.1)	51.8 (▲11.1)
'14. 3분기	37.4 (▽1.0)	31.3 (▽1.8)	43.5 (▽0.3)	46.3 (▽0.5)	40.8 (0.0)	40.7 (▽4.8)
'14. 2분기	38.4 (▽2.4)	33.1 (▲1.7)	43.8 (▽6.6)	46.8 (▽5.5)	40.8 (▽7.7)	45.5 (▲3.2)
'14. 1분기	40.9 (▽3.3)	31.4 (▽14.2)	50.4 (▲7.6)	52.3 (▲5.2)	48.5 (▲10.0)	42.3 (▽19.3)
'13. 4분기	44.2 (▲9.2)	45.6 (▲8.9)	42.8 (▲9.5)	47.1 (▲0.6)	38.5 (▲18.5)	61.6 (▲17.5)
'13. 3분기	35.0 (▲4.4)	36.7 (▲3.9)	33.3 (▲4.8)	46.5 (▲16.6)	20.0 (▽6.9)	44.1 (▽2.6)
'13. 2분기	30.6 (▽2.6)	32.8 (▲6.7)	28.4 (▽11.8)	29.9 (▽3.6)	26.9 (▽20.0)	46.7 (▲12.6)
'13. 1분기	33.2 (▽9.1)	26.1 (▽7.8)	40.2 (▽10.4)	33.5 (▽14.6)	46.9 (▽6.2)	34.1 (▽21.3)

○ (항목별 평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상실에 따른 실망감으로 전문가 평가지수는 하락했으나, 정량분석지수는 상승

① 전문가평가지수 (2015년 1/4분기: 26.7 → 2/4분기: 24.8)

- 총 87명의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9p 하락한 24.8을 기록하면서 남북관계는 2분기 연속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연초의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추진 등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대한 실망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

② 정량분석지수 (2015년 1/4분기: 40.5 → 2/4분기: 49.5)

-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0p나 상승한 49.5를 기록
- 이는 이벤트지수의 소폭 상승과 교류지수의 큰 폭 상승에 힘입음

< 2010~2015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 이벤트지수 (2015년 1/4분기 : 45.7 → 2/4분기 : 48.7) : 지난 분기에 비해 3.2p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였음
 - 이는 북한의 대화 무응답과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촉구와 NGO 단체들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 자제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됨
- 교류지수 (2015년 1/4분기 : 35.4 → 2/4분기 : 50.0) : 전기 대비 14.6p이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이는 개성공단의 남북교역(전분기 대비 2/4분기 3.0% 증가)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1/4분기 0 → 2/4분기 18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0~2015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임

- 2015년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모두 지난 분기의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보수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였음
 -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기대지수 45.0)의 전문가들이 진보 성향(同 33.3) 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 40.2보다 4.9p 하락한 35.3을 기록함으로써, 3/4분기에도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함
 - 기대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기대지수의 상승 반전을 위한 모멘텀 마련 노력이 필요함
 - 다만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8.15 공동행사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음

< 2013~2015년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 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5. 2분기	27.3 (▽4.5)	39.4 (▽5.6)	25.6 (▽1.7)	36.2 (▽8.9)	25.0 (▲0.4)	30.2 (▽3.1)	24.8 (▽1.9)	35.3 (▽4.9)
'15. 1분기	31.8 (▽7.2)	45.0 (▽8.9)	27.3 (▽12.2)	43.2 (▽4.1)	24.6 (▽14.8)	33.3 (▽22.1)	26.7 (▽12.3)	40.2 (▽11.6)
'14. 4분기	39.0 (▲2.4)	53.9 (▲7.7)	39.5 (▲5.2)	47.3 (▲5.2)	39.4 (▲15.0)	55.4 (▲20.0)	39.0 (▲7.7)	51.8 (▲11.1)
'14. 3분기	36.6 (▲4.0)	46.2 (▲1.1)	34.3 (▽1.4)	42.1 (▽4.3)	24.4 (▽7.1)	33.4 (▽11.0)	31.3 (▽1.8)	40.7 (▽4.8)
'14. 2분기	32.6 (▲1.5)	45.1 (▽0.9)	35.7 (▲4.6)	46.4 (▲3.4)	31.5 (▲5.2)	44.4 (▲3.2)	33.1 (▲1.7)	45.5 (▲3.2)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2.3 (▽19.3)
'13. 4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4.1 (▽21.3)

3. 시사점

- 첫째,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분위기 조성 노력 필요
 - 남북 양측은 연초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화해협력 방향으로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바 있음
 - 남한은 올해가 전국적 선거가 없는 해인만큼, 하반기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북한도 올해가 김정일 위원장 탈상 3년을 지나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해인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
 - 따라서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비정치·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양측이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

- 둘째 상호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을 위한 ‘일시적·시범적’ 사업 추진과 함께, 8.15 기념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사업을 제안
 - 양측의 최우선 현안 맞교환 :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일정기간 동안 시범 시행할 것을 제안
 -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 : 남북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북한 가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체육·문화 분야 등으로의 교류 확대
 - One-Point 끝장 회담 제안 : 북측이 거부하고 있는 포괄적인 남북고위급 접촉과는 별도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특정 현안에 대해 비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하여, 서로의 진정성을 전달·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과 다자간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이 확대되도록 협력 방안 모색
 -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통일연구센터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02-2072-6221, sjhong@hri.co.kr)

최성근 연구위원 (02-2072-6223, csk01@hri.co.kr)

<부록 1>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와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²⁾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2)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록 2> 이벤트지수

- 이벤트 지수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회담과 사건 등을 총 11 단계로 구분하여, 평화 정도에 따라 0~100점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계산함
- 총 11 단계는 가장 안전한 제1단계의 ‘양국 통합’(가중치 100점)에서 제6단계의 일상적인 ‘중립 상태’(同 50~59점),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제11단계의 ‘전면 전쟁’(同 0~9점) 등의 단계로 구분

<부록 3>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회·문화·인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